

여드름은 연고제(軟膏劑) 남용의 덕택이다

피부연고제



한 일 영

우리나라는 연고제(軟膏劑)의 왕국?

언제인가 모 유명한 제약회사의 간부로 있는 분으로부터 고백을 들은 일이 있다. 그 회사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제약회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처지인데, 우리나라에 그 회사에서 발매하고 있는 연고제가 너무나 많이 팔려서 그 기술고문으로 있는 외국사람이 「한국에는 무슨 까닭으로 습진(濕疹) 환자가 이다지도 많으나」 물었을 때 진땀을 뺐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

이 아직 개선하지 못한 점이 많아서 그러한가보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으나 그 약들이 의사의 처방도 없이 약방에서 마구 팔려서 화장품 대신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도저히 말할수가 없었다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미개하다고 하는것과, 처방없이 마구 팔려서 화장품대신으로 쓰여진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하고 어느쪽이 나라망신이나 하는것은 가리기 힘들지만 좌우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이해가 가지않을 정도로 연고제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각 메이커들은 앞을 다투어서 각종 연고제를 만들어내고, 서로 질세라 각종 메스컴을 이용해서 과대선전을 일삼고 있다.

한국적인 여드름 풍경

모든 사물을 국산화 하고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하나 여드름까지 한국의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을것이다.

서울거리를 거닐면서 마주치는 아가씨 얼굴을 살펴 보면 10명중 5명은 다소간의 여드름이 있을것이고, 그 여드름의 과반수가 매우 선명한 「핑크」색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고, 따라서 어느 의학서적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여드름, 즉 우리나라에

특 집

서만 볼 수 있다고도 할 수있는 특수한 여드름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선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이 특수하여 그런것이 생긴다고 짐작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연고제들을 함부로 피부용약이라고 팔고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열심히 바른 덕분(?)인 것이다.

이러한 연고제들은 어떤 피부병에 매우 잘 듣기는하나 잘못 쓰게되면 그 부작용이 크므로 해서 의사의 처방없이 함부로 팔지 않는 약이므로 환자가 그렇게 장기간 쓸수도 없고, 따라서 그러한 부작용을 현실적으로 보기도 힘든 것이다.

이렇게 핑크색 여드름을 가진 분들이 만약 외국병원에 간다면 그 유명한 피부과 의사들도 머리를 가리면서 진단을 내리는데 고생케나 할 것이다.

돈 주고 약 쓰고 병은

오히려 악화 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비단 얼굴의 여드름뿐만 아니다. 여름철에 읍고부——사타구니에 완선(頑癬)이라고 하여 일종의 곰팡이병이 있는데 이것을 습진(濕疹)으로 오인하고 역시 습진용 연고제를 함부로 바르면 처음에는 좀 차도가 있는듯하다가 다시 악화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돈 주고 약을 사서 쓰고난 뒤 그 병

◇ 세계 제일

가장 추운 곳은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은 어딜까. 기록상으로는 1960년 8월 24일, 남극대륙의 『보스토크』에서 영하 88.3°C가 최저다.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로서는 쏘련의 시베리아에 있는 작은 시골마을 『오이미야곤』(북위 63도 16분, 동경 143도 15분)에서 1964년에 영하 71°C를 기록한 것이 최저란다.

설최 영하 58°C 이하로 내려간 기록을 살펴보면 별표와 같다.

기온(°C) 영하	장 소	일 시
58.3	加, 에레스미야島	1852
68.0	蘇, 시베리아 베르얀스크	1885. 1. 3
68.0	蘇, " "	1892. 2. 5
73.5	南極 南極點	1957. 5. 11
74.5	" "	1957. 9. 17
78.4	" 소비에트 스카야	1958. 5. 2
80.7	" 보스토크	1958. 6. 15
81.0	" 소비에트 스카야	1958. 6. 19
83.0	" "	1958. 6. 25
85.8	" 보스토크	1958. 8. 7
86.7	" 소비에트 스카야	1958. 8. 9
87.4	" 보스토크	1958. 8. 25
88.3	" 보스토크	1960. 8. 24

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이중 삼중의 손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필자=한피부과원장·의학박사)